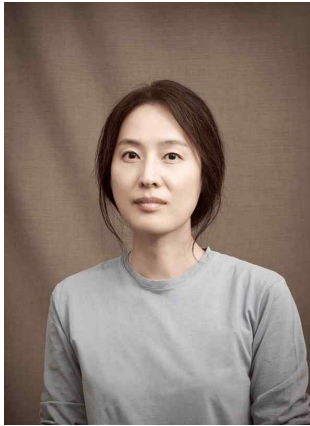


## 제4회 김현문학패 수상자 발표

시 / 신영배



소설 / 백민석



한국문학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독립 문학 공간을 지향하며 설립된 사단법인 문학실험실이 제4회 김현문학패 수상자를 선정·발표했다. 2001년 등단한 이래 한국 여성 시의 새로운 경지를 집요하게 개척해온 신영배 시인과, 1995년 등단해 새로운 시대의 모순에 맞서는 ‘분노 자본’의 분출을 통해 소설적 상상력의 지평을 넓혀온 백민석 소설가가 그 주인공. 김현문학패 수여식은 2018년 9월 28일(금)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열릴 예정이며, 수상자에겐 문학패와 창작지원금(시 1천만 원, 소설 1천5백만 원)이 주어진다.

### 신영배 – 여성성의 시적 방언, 혹은 여성성의 미학적 해체와 재구성

**신영배 시인** 1972년 충청남도 태안에서 태어나, 2001년 계간 『포에지』를 통해 등단했다. 시집 『기억이동장치』(2006) 『오후 여섯 시에 나는 가장 길어진다』(2009) 『물속의 피아노』(2013) 『그 숲에서 당신을 만날까』(2017) 등을 펴냈으며, 제2회 김광협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 백민석 – 불경한 상상력을 통한 ‘분노 자본’의 충격적 분출

**백민석 소설가**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나, 1995년 계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했다. 『16민거나말거나박물지』(1997) 『장원의 심부름꾼 소년』(2001) 『허끝의 남자』(2013) 『수림』(2017) 등의 중단편집과 『헤이, 우리 소풍 간다』(1995) 『내가 사랑한 캔디』(1996) 『불쌍한 꼬마 한스』(1998) 『목화밭 엮기전』(2000) 『러셔』(2003) 『죽은 올빼미 농장』(2003) 『공포의 세기』(2016) 등의 장편소설을 펴냈다.

\*수상자와 김현 인물 이미지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 제4회 김현문학패 선정 과정

2015년, 시장 논리에 매몰된 문학의 독립 활동을 지향하는 사단법인 문학실험실(대표 이인성)의 설립과 함께, 한국 문학비평을 획기적으로 쇄신하고 새로운 문학적 전망을 제시했던 고(故) 김현의 25주기를 기념하여 제정된 ‘김현문학패’는 그 제정 목적과 시행 원칙(첨부한 ‘김현문학패 소개’ 참조)에 따라 제1회 수상자로 한유주 소설가와 성기완 시인을, 제2회 수상자로 김태용 소설가와 이제니 시인을, 3회 수상자로 서준환 소설가와 강정 시인을 선정한 바 있다.

시행 4년차를 맞은 금년 1월, 본 선정위원회(아래 명단 참조)는 규정에 따라, 1) 2018년 현재 김현의 타계 나이인 만 48세(1970년생) 이하로서, 2) 등단 이후 해당 장르에서 2권 이상의 저서를 펴냈으며, 3) 그 마지막 저서가 지난 3년(2015~2017년) 사이에 나온 시인·소설가들의 명단과 그들의 출간 도서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가급적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김현과 문학실험실의 문학관을 잘 반영해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20여 명의 문인들에게 비공개로 전제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 이를 참고자료로 채택하였다.

이후 2월부터 6월까지 압축된 후보자들의 전 작품을 검토하며 다각도의 토론을 거친 본 선정위원회는, 이제 김현 27주기(6월 27일)에 즈음하여 제4회 수상자로 신영배 시인과 백민석 소설가를 결정·발표하게 되었다.

## 제4회 김현문학패 선정의 말

### 신영배—여성성의 시적 방언, 혹은 여성성의 미학적 해체와 재구성

오로지 시적 방언으로만 은밀히 세상과 소통하려는 듯이 보이는 비의적(秘儀的) 시인 신영배는, 그 독특한 시적 언어를 통해 페미니즘이 사회적·문화적 이슈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여성성의 심원한 세계를 집요하게 탐구해왔다. 그 탐구는 그런데 남성성과의 단순 대립이나 적대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성성·남성성의 필연적 관계와 전체적 인식 속에서 자신의 독자적 존재 방식을 구축해나간다는 점에서, 그리고 한국시사에서 전례 없이 풍요롭고 중층적인 물의 이미지들이 전혀 새로운 한국어 어감과 조어를 창조하는 예술 방식으로까지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여성성의 주제적 탐구와 그 시적 예술 방식의 탐구가 미학적으로 완벽하게 결합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주목을 요한다. 이 시인의 외로운 시-운동은 한국문학의 또 다른 경지를 열고 있는 중이다.

### 백민석—불경한 상상력을 통한 ‘분노 자본’의 충격적 분출

1990년대에 저급하고 불온한 대중문화와 활발히 교류하며 등장한 ‘신세대’ 문학의 선두 작가로 특유의 ‘엽기적 상상력’을 통해 이 세계의 모순과 불공정성에 대한 분노의 감수성을 일깨워줬던 소설가 백민석은, 그러나 홀연 10년간의 침묵 속으로 잠적했었다. 많은 동세대 작가들이 신자유주의 시대와 타협하며 거짓 저항의 포즈만을 보여주던 그 사이에 그가 홀로 어떤 삶과 정신의 굴곡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거듭 태어나 되돌아온 이 작가는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분노 자본’의 에너지를 묵시론적 전망과 임계점을 향해 다가가는 듯한 절박한 실험적 언어로 쏟아내고 있다. 그가 포착한 특유의 불경한 삶의 양태들(왜곡된 남성성을 포함한)을 이전보다 차원을 높인, 물질 세계와 정신을 포괄하는 보다 확대된 관점에서 형상화하며 한국문학에 가해온 새로운 충격을 우리는 외면할 수도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된다.

#### ▪ 선정위원

김정환 (시인)

김태환 (평론가, 서울대 인문대 독문과 교수)

김형중 (평론가, 조선대 인문과학대 국문과 교수)

성민엽 (평론가, 서울대 인문대 중문과 교수)

이인성 (소설가, 문학실험실 대표)